

#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성료

### 전남도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찾아 성황

### 드론·코딩 등 4차산업 관련 체험 부스 인기



전남도교육청이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활동나눔 페스티벌을 갖고 1차년도 운영 성과를 교육가족, 도민들과 함께 나눴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일원에서 '2019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활동나눔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프로젝트 참가 팀들의 활동성과 성과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무대로 펼쳐진 이번 페스티벌에는 전남 도내 학생 및 청소년, 학부모, 교직원, 지역민 등 4,000여 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청소년들의 꿈을 향한 다양한 활동성과를 나눌 수 있도록 팀 별 활동 부스, 문화예술 공연, 활동 발표, 초청 강연, 결과물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드론, 코딩 등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의 체험 부스에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참여 팀들의 활동 사례 발표에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2020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사업 계획 설명회 현장에도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찾아 2년차 사업도 성공을 예감하게 했다.

내년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 미래도전' 홈페이지 (<http://www.jfc.j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날 개막식에는 한울고와 목포 덕인중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프로젝트 510팀의 그동안 활동 모습을 담은 영상 시청, 국내외 우수팀 사례 발표 등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또한, 조현영 교사의 '클래식 역사 안에서 도전과 응전', 오현오 교사의 '부시파일럿 나는 길이 없는 곳으로 간다'라는 주제의 미래도전 강연도 함께 펼쳐져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도전과 희망의 의지를 일깨워줬다.

장석용 교육감은 "지난 1년여 동안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활동을 성실히 진행해준 학생과 멘토 교사들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오늘 그 성과를 함께 나누고,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민선3기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의 가장 역점적인 학생 프로그램 중 하나인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는 지난 4월 국내 482팀과 국외 28팀 등 최종 510팀을 선발한 뒤 팀별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2020년 2월까지 팀 프로젝트 형태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기획과 실행·평가·성찰 등 모든 과정을 학생 스스로 추진토록 지원하고 있다.

허성은 기자

# 광주 체육교사들 '핸드볼·골프' 등 수업 비법 공유

### 시교육청, 2019 광주교육 체육수업 한마당 개최

### 핸드볼·골프·체육표현수업 등 연구 성과 나눠



광주시교육청이 광주 체육교사들의 각종 연구 활동 실천사례와 성과를 나눌 수 있는 '2019 광주교육 체육수업 한마당'을 12일 개최했다.

참여 교사들은 이날 사례발표회에서 핸드볼 경기수행 능력과 공동체의식을 아우르는 체육수업 노하우(오주희 전남중), 평생스포츠를 위한 변형퍼팅 골프수업(소태호 성덕고), 리더십과 체육표현수업(전세홍 월봉초) 등을 주제로 학교체육 수업방법개선을 위한 방법을 다른 참여자들

과 나눴다. 또한 다양한 학교체육 사업을 공유하고 발전적 운영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례발표회는 광주중등체육교과연구회(회장 김중형), 투지PETC(회장 최효원), 광주체육교사연구회(회장 소태호)가 2019학년도에 연구하고 실천했던 다양한 사례와 성과를 현장 교원과 나눔으로써 우수한 사례를 교육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중등이 하나되는 체육수업 나눔'을 주제로 본초초등학교

에서 열렸으며 초·중·고등학교 교원 간 학교체육활성화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했다. 또한 현장 중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체육 교사가 학교체육 발전에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3개 주제 사례를 발표했다.

광주 초·중·고교 체육교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시교육청 박익수 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은 '소통을 통한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체육수업에 대한 고민과 혁신의 바람직한 체육교사상에 대해 기초강연을 했다. 박 과장은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교사들의 노력과 열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 체육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더불어 역량을 강화해 모든 아이들이 더욱 행복한 교실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사례발표회에 참여한 교사는 "뜻깊고 의미 있는 체육교사 학습공동체가 되었다"며 "초·중·고 체육교사가 한자리에 모인 이 자리에서 에너지를 받아 체육교사로서 사명감을 다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 나주교육청 청렴 한마음 결의대회 실시



나주교육청은 13일 빛가람호텔에서 나주교육지원청 직원 및 관내 학교 행정실 직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2019. 청렴 한마음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청렴 한마음 결의대회는

조직의 청렴 의지를 높이고 슬신수범하는 청렴문화를 확립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일선학교 행정실 직원과 교육장과의 경청을 통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상호 토론하면서 소통과 공감의 한마당이 되었다.

나주교육지원청 김영길 교육장은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예전보다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되었지만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의 조금 더 필요하다"며 청렴 문화를 더욱더 확산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허성은 기자

# 담양교육청 "따뜻한 세상을 위하여"



담양교육청 Wee센터는 13일 담양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샘·봄 지원단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샘·봄 지원단 성과 보고회를 실시했다.

샘·봄 지원단 성과 보고회는 교사 중심으로 구성된 멘토 지원

단이 다양한 원인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1:1 결연을 맺고, 1년 동안 활동한 멘토링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이다.

멘토링은 문화체험, 의복 및 생

생활 및 기초학습지도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되었고 멘토단으로 활동한 조동훈 멘토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 학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며 학생입장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해하는 계기가 됐고, 학생들의 따뜻한 손을 맞잡으며 나 또한 위로 받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정희 교육장은 "샘·봄 지원단의 따뜻한 마음이 한데 모여 추운 겨울의 온도를 높여주는 것 같다."고 말하며, 지역사회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를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본 프로젝트에 참여해 준 샘·봄 지원단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해남공공도서관, 그림책으로 만나는 중앙아시아 운영

해남공공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 아시아 문화의 가치와 다양성을 알리기 위해 아시아 문화원과 연계하여 '아시아가 키우는 아시아의 아이들' 프로그램을 12월 14일 운영하였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 나라의

그림책과 그 주인공들을 만나는 이 프로그램은 책을 읽고 놀며 알게 된 아시아 나라의 문화와 특색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현하고 등장인물들에게 편지를 쓰며, 뒷이야기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 강사 고무신(Play Artist, 고무신학교 대표)씨는 "해

남이 농촌지역 다문화 인구 최대 지역이라고 들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다른 나라에 대한 편견 없자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으며, 김모 어린이는 "나중에 오늘 배운 나라를 직접 찾아가 그 곳에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다.

해남=서명환 기자

